

간동맥 화학색전술로 호전된 우심방과 하대정맥을 침입한 진행성 간세포암종 1례

포천중문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주현 · 시계동 · 황일준 · 윤재호 · 권창일 · 황성규 · 임규성

서론 : 간세포암종(이하 간암)에서 하대정맥과 우심방에 종양 혈전이 발견되는 빈도는 5.2%, 4.7%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암이 하대정맥을 거쳐 우심방으로 전이한 경우 예후가 불량하여 생존률이 매우 낮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 등은 하대정맥과 우심방을 침입한 진행성 간암 환자에서 경동맥화학색전술후 우심방과 하대정맥의 종양 혈전이 현저히 감소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74세 남자 환자가 심와부 불편감을 주소로 외부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 가족력, 수술력 및 약물 복용력 상 특이 사항이 없었고, 약 40년간 하루 평균 소주 1 병씩 마신 음주력이 있었다. 신체 진찰에서는 특이 소견 없었다. 입원 당시 혈액검사에서는 헤모글로빈 12.0 g/dL, 혈소판 130000/uL, AST 63 IU/L, ALT 28 IU/L, 총빌리루빈 1.8 mg/dL, 알부민 3.8 g/dL 크레아티닌 1.7 mg/dL였고, PT 78%였다. 혈청 바이러스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고, AFP은 998.9 ng/ml 이었다. 복부 CT에서는 우심방과 하대정맥이 종양혈전으로 충만되어 내강이 확장되어 있었고, 간좌엽에 동맥조영기에 조영이 증가되고 지연기에 조영 감소를 보이는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8 cm 크기의 종괴가 있었으며, 좌측 문맥과 중심 문맥이 혈전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하대정맥까지 이어져 있었다. 환자는 임상 및 영상 소견상 간암으로 진단되었고, TNM병기는 IV-A(T4N0M0)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간동맥 혈관 조영술상 우심방으로 확장되어 있는 좌엽의 거대한 종괴와 혈액 공급을 하고 있는 혈관들이 관찰되어 adriamycin(50mg)과 Lipiodol을 주입하였고, 종괴에서 우심방의 혈전으로 바로 주행하는 혈관이 관찰되어 coil로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4주후 시행한 복부 CT상 간좌엽과 우심방의 혈전에 lipiodol이 밀집하게 침투되어 있었고, 혈청 AFP 94.3 ng/mL로 감소되어 있었다. 3차로 시행한 간동맥 혈관 조영술상 간좌엽의 주종괴의 원원으로 종양 염색이 있었으나 우심방내의 종양 염색은 없어 주종괴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 후 외래 관찰 중이다.

간세포암종에 동반된 간문맥혈전에 대한 성공적인 경피적에탄올주입술 치료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익 · 김은선 · 박선민 · 김진남 · 정성우 · 김동일 · 구자설 · 임형준 · 이홍식 · 이상우 · 최재현

서론 :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암세포에 의한 간문맥 침윤과 관련하여 간문맥 혈전이 간혹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하며 수술이나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할 경우 간부전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간문맥 혈전을 동반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문맥내 경피적에탄올주입술을 경동맥화학색전술과 병행하여 장기간 간부전의 증거 없이 비교적 장기간 생존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알코올남용 병력이 있는 53세 남자가 우상복부통증과 개인의원의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발견된 간종괴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총혈구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고 일반화학검사에서 AST/ALT 56/28 IU/L으로 약간 증가한 것 이외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나 혈청 알파태아단백은 100 ng/mL로 상승되었다. 복부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간우엽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종괴가 관찰되었다. 이 병변은 조영제 투여 후 동맥기에서 고감쇠를 보이고 문맥기에서는 저감쇠를 보여 간세포암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간문맥의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 외의 전이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2차례의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문맥 우측 분지와 중간문맥 근위부에 걸쳐 암침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혈전이 관찰되었다. 저자들은 간문맥 혈전 병변에 경피적으로 에탄올을 주입하고 간세포암종에 대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실시하였다. 환자는 간세포암종으로 진단된 후 1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고주파열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간부전이나 담도 협착 등의 심각한 합병증 없이 현재 추적 관찰 중이다. 태아알파단백은 진단시 100ng/mL이었으나 마지막 검사에서는 7.7 ng/mL로 감소되었으며 복부전산화 단층촬영에서도 잔존하는 간세포암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본 증례의 환자에서 간문맥혈전이 발생한 당시에 간문맥혈전에 대한 경피적 에탄올주입술을 시행하여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아직 보고된 연구는 드물지만 간세포암종에 의한 간문맥혈전에 대한 치료법으로 경피적에탄올주입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